

이탈은 컸고, 선택은 확고했다

KIA, '현실과 이상' 사이 뒷북만 친스토브리그

내야·불펜 '부분 보완'...최형우 이적이 남긴 상징적 균형
마운드는 '유지와 보강' 흐름, 마지막 FA 조상우 협상 관련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스토브리그가 한 달을 넘었다. 내부 FA 협상이 연달아 결론이 나면서 이번 겨울의 윤곽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떠난 선수는 세 명, 지켜낸 선수는 두 명. 전력과 상징이 동시에 빠져나갔고, 팬심까지 크게 요동쳤다. 구단은 남은 협상을 조율하는 동시에 본적 외국인 구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KIA는 일찌감치 '제한된 예산 속 합리적 지출'을 기본 원칙으로 세웠다.

이 계약은 오프시즌

전반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기준선이 됐다. 구단은 내부 FA와 2차 드래프트, 아시아쿼터, 외국인 구성까지 여러 변수가 맞물린 상황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다.

특히 FA 시장의 출발점부터 불리함을 안고 들어갔다.

최형우와 양현중, 박찬호와 조상우, 이준영과 한승택까지 총 6명이 FA 자격을 얻었다. 예산 폭이 좁은 상황에서 이들을 모두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과제였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고, 예상대로 이탈이 컸다.

주전 유격수 박찬호의 이적이 첫 번째 실패였다.

이번 FA 시장의 최대어였고, 시장 환경이 큰 요인이었다. 유격수라는 포지션의 특성상 수요가 높았고, 선수의 가치도 자

연스럽게 상승했다. 반면 KIA는 자체 설정한 합리적 기준선 안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자본과 시장 논리가 구단의 방침보다 앞선 사례였다. 이에 대한 즉각적 보완도 뒤따랐다.

KIA는 박찬호의 보상선수로 투수 홍민규를 지명했고, 2차 드래프트에서는 불펜 이태양과 내야수 이호연을 영입했다. 전력의 큰 틀을 바꾸기보다는 취약한 불펜과 앞아진 내야를 메우는 수준의 조치였다. 백업 포수 한승택도 팀을 떠났다. 팀 내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리그 내 포수 수요는 그의 선택지를 넓혔다. 공백 규모만 놓고 보면, 전력의 중심을 흔들는 변수는 아니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최형우의 이적이다. 이 사안은 여러 층위가 겹친 복합적 이슈였다.

올 시즌 KIA는 성적 부진 속에서 팀 노쇠화 문제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형우는 여전히 실질 전력이지만, 은퇴까지의 활동 기간은 2-3년 남짓으로 좁혀져 있다. 구단은 그 이후 생길 빈자리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FA 계약 금액과 기간에 대한 견해차가 더해졌고, 지명

타자(DH) 운영 문제까지 겹쳤다. 나성범·김선빈의 출장 관리와 젊은 선수들의 타석 배분을 고려하면 DH 한 자리를 고정하기 쉽지 않았다. 구단이 최형우와 결별한 배경에는 계약 구조에 대한 이견과 함께, 타선 운영을 장기적으로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미래 지향적' 판단이 동시에 작용했다.

반면 투수진은 다른 흐름이었다.

좌완 스페셜리스트 이준영이 가장 먼저 잔류를 확정했고, 외국인 '에이스' 네일과도 재계약을 마쳤다.

논의가 이어지는 올겨울 역시 구단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스타 양현중의 잔류는 이번 겨울 가장 큰 수확이다. 논의가 길어지며 불안감이 있었지만 결국 원소속 팀과 다시 손을 잡았다. 팀을 지탱해온 좌완 선발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내부 FA 테이블에는 조상우만 남아 있다.

필승조 핵심인 만큼 구단 역시 잔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상우 건은 이번 FA의 마지막 단추가 될 전망이다.

남은 겨울 일정도 명확하다. 외국인 선

수 2명의 구성과 아시아쿼터 활용 여부가 필수 과제다. 조상우의 거취와 별개로 남은 퍼즐을 맞추겠다는 구단의 계획도 드러난 상태다.

다만 팬심은 여전히 예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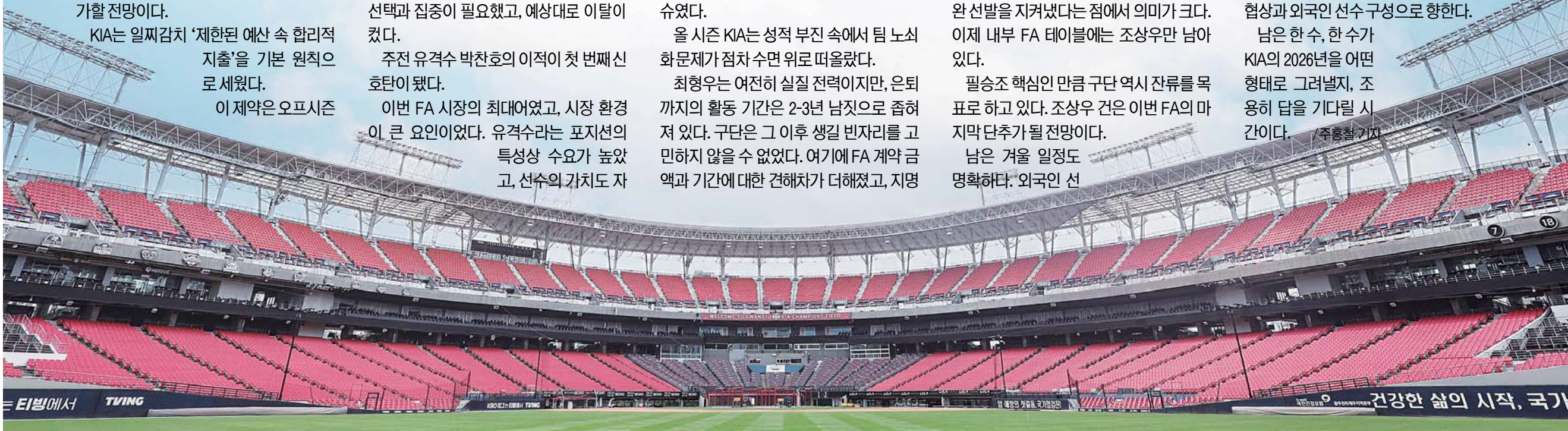
최형우 협상이 남긴 여운이 깊었고, 과정과 결말 모두 실망감을 키웠다. 양현중 잔류가 분위기를 어느 정도 달랬지만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다. 남은 대화와 외국인 구성에 따라 여론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KIA의 오프시즌 행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다.

'아수진은 변동, 투수진은 유지와 보강'. 예산·구조·운영 철학에 따라 일부 포지션을 조정했고, 전력의 뼈대인 마운드는 유지·보강하는 쪽으로 균형을 맞추려 했다. FA와 드래프트는 자연스럽게 전력의 '부분적 손질 과정'이 됐다. 이제 시선은 조상우의 협상과 외국인 선수 구성으로 향한다.

남은 한 수, 한 수가

KIA의 2026년을 어떤 형태로 그려낼지, 조용히 답을 기다릴 시간이다. /주홍철 기자



“광주·대만 양궁 교류 물꼬…우호 증진 기대”



박익수 광주시양궁협회 상임부회장이 지난 2일 대만체육대학 세미나실에서 실내 양궁 월드컵에 참가한 각국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코칭세미나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익수 광주시양궁협회 부회장, 대만 실내양궁 월드컵 코칭 세미나

선수·지도자·행정가로 경험과 열정 녹여낸 노하우 전달
스토링텔링·다양한 사례 접목 실전 적응 프로그램 호평

“올림픽 여자 양궁 3회 연속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광주 양궁의 선진화된 시스템, '멘티'와 '멘토'로 함께 성장하는 광주 양궁만의 문화, 경기력과 인성을 겸비한 전인교육에 힘을 쏟는 협회와 지도자들의 열정 등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전달하며 광주 양궁과 대만 양궁의 새로운 교류의 장을 열었습니다.”

선수과 지도자를 거쳐 행정가로 50여 년 양궁 인생을 이어 온 박익수 광주시양궁협회 상임부회장이 지난 1-8일 대만에서 열린 World Indoor Archery Championship (실내 양궁 월드컵) 대회에서 세 차례 특별 세미나를 진행했다.

대만양궁협회와 선수 시절을 함께 한 피터 추(추병곤) 대만체육대학 총장과의 인연으로 대회 VIP로 초청된 박 상임부회장은 지난 2일 대만체육대학 세미나실에서 공식 코치세미나 강사 임명장을 수여받고 '최고의 슈팅 순간을 완성하는 기술', '효율적인 훈련 프로그램', '투닝 전략', '체력·전통적 훈련', '경기 루틴 구축 방법' 등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양궁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강의해 호평받았다.

이어 5일에는 각국 참가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소통과 참여를 통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진행했다. 박 상임부회장은 자신의 두 가지 삶의 여정과 지도 철학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운동부 지도자와 교사들에게 깊은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6일에는 한국 양궁이 세계 최강으로 자리 잡은 역사와 지도자들의 헌신, 그리고 올림픽 10연패를 목표로 한 다양한 올림픽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한국 양궁의 철학과 시스템을 국제무대에 생생하게 전달했다. 특히 이번 세 차례의 강연은 기존의 이론 중심이 아닌 한국 양궁 역사의 주인공들이었던 1988 서울올림픽 김수녕부터 2012 런던올림픽 기보배, 2020 도쿄 올림픽 안산,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오예진의 슈팅 순간 자세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담아내고 다양한 실전 사례들을 강의에 녹여낸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박 상임부회장은 대만 실내 월드컵대회 경기

장을 방문했을 때, 코치세미나에 참석했던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먼저 알아보고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박 상임부회장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집중 투자로 급성장하는 대만 양궁의 현재를 봤다”며 “영원한 세계 1등은 없다” 이제 한국 양궁도 AI를 접목한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트레이닝 과정과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대화에 참가한 각국의 지도자들이 먼저 다가가 반갑게 인사해 주니 참 기분이 좋았다. 이번 대만 일정이 특별한 의미로 남게 됐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광주 양궁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만 양궁과의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우호교류 등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체고에서 활과 인연을 맺으며 태극마크를 달았던 박 상임부회장은 지난 50년간의 양궁 인생을 총망라한 사진책 '흔적: 두 가지 삶의 여정'을 발간, 후배들에게 작은 올림을 전했고 한국 양궁 역사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작은 디딤돌을 선사했다.

현재 PIS 양궁연구소를 개설해 선수, 지도자, 행정가로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양궁 이론 정립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데이터 구축에 열정을 쏟고 있다. /박희중 기자

장애 아동 체육활동 활성화 캠페인 추진

광주시장애인체육회·굿네이버스 호남권역본부 업무협약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11일 광주시에인 국민체육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한상득 광주시에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오아름 굿네이버스 호남권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아동 체육활동 활성화 캠페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 청소년 대상 체육활동 및 스포츠 프로그램 연계 지원 ▲지역 내 아동·청소년(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및 행사 운영 협력 ▲위기 가정 및 취약계층 아동 장학금 지원 및 물품 지원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한상득 광주시에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장애아동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다양한 기부채널 운영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내년 구례 장애인체전 성공 개최 준비 박차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유관단체 준비상황 합동회의 개최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내년 구례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34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11일 구례군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전남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구례군, 각 경기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상황 합동회의를 열고 참가 요강 협의, 구례군 협조 사항 등 대회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후에는 경기장 실사도 진행했다. (사진)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구례군정 전남체전TF팀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회 일정 확정, 상징물 및 구호 승인 등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폐회식과 성화행사를 총괄할 전문 대행사를 선정했으며 구례의 역사와 자연환경 등 지역적 특색을 담은 공개행사 연출을 체계적으로 준비 중이다.

/박희중 기자